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EU, 헤지펀드 규제 합의

- 유로지역의 역내외 헤지펀드들은 유로지역 회원국들이 10월 20일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유럽증권시장감독청(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)과 각국의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을 것으로 보임.
 - 헤지펀드 규제 합의로 인해 유로지역의 역내외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등은 각국의 금융감독 당국과 유럽증권시장감독청에 등록하는 것이 의무화됨.
 - 각국의 금융감독 당국과 유럽증권시장감독청에게 헤지펀드의 대출금을 제한하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이용한 헤지펀드의 수익 창출 행위는 어느 정도 방지될 것으로 보임.
 - 최종 헤지펀드 규제(안)은 유로지역의 역외 헤지펀드가 유럽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자는 지난 5월의 협의(안)에 비해서는 크게 완화된 것임.
 - 헤지펀드 규제(안)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조정을 거친 후 11월초 유럽의회(European Parliament)에 상정될 예정임.
- 소위 여권(passport)조항으로 불리는 헤지펀드의 범유로지역 마케팅 권한에 대한 규제가 합의됨으로써 역외 헤지펀드도 마케팅이 가능해짐.
 - 역외 헤지펀드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확대시키는 역기능으로 인해 초기 협의(안)에서는 제외되었으나 투자 활성화란 순기능의 장점이 더 크다는 의견에 따라 포함시키기로 결정됨.
 - 여권조항은 2013년부터 역내 헤지펀드에게 적용되며, 역외 헤지펀드들은 2015년부터 적용될 예정임.
 - 유예기간의 성격으로 2018년까지는 각국이 승인한 헤지펀드 또는 여권조항의 요구조건을 충족한 헤지펀드 모두 운영될 수 있으나 그 이후부터는 여권조항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한 헤지펀드만이 운영되도록 함.
 - 유로지역 역내외 헤지펀드들이 여권조항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OECD의 규정에 근거한 조세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을 따라야 하며, EU와 정보교환을 하는 등 3가지 요건을 충족되어야 함.
 - 한편,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이 여권발급 국가를 선정하게 됨으로써 향후 헤지펀드 감독에 대한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.

(Wall Street Journal, 10/20)